

 한국건강가정진흥원 <small>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</small>		<h1>보도자료</h1>		 더 가까이 더 다양하게 가족서비스를 선도하는 KIHFF	
http://www.kihf.or.kr					
보도일시	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3쪽	
배포일자	2019. 12. 31.(화)	담당부서	윤리감사실		
담당실장	정은미 (02-3479-5550)	담당자	서우경 (02-3479-5552)		

한국건강가정진흥원,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사 캠페인 실시

- 직원 간담회를 통한 5대 실천과제 도출, '행복한 한가원 만들기' 캠페인 실시
-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전파로 인권경영 확산 노력

-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김혜영)은 2019년 종무식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노고를 치하하고, 상호존중문화 조성 촉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.
- 이번 캠페인은 직원간담회와 인권 ombudsman(박찬성 변호사)의 모니터링 및 지문을 받아 발굴한 '행복한 한가원 만들기 5대 실천과제'를 선포하여 임직원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 - * 5대 실천과제 : ▲ '소통 활성화', ▲ "모든 차별 철폐", ▲ "부당한 업무지시 근절", ▲ "상호 존중과 배려 실천", ▲ "건전한 신고문화 조성" 으로 분야별 18개 세부 실천사항으로 구성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하 '한가원')은 '가족행복 실현을 위한 인권 의식 선도기관'의 비전을 가지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.

- 특히, 2019년은 인권경영 추진 원년으로, ‘인권경영 및 갑질 근절 비전 선포식’과 임직원 대상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하였으며,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‘상호존중의 날’로 지정하여 인권보호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권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.
- 11월에는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권 및 갑질에 대한 직원들의 문제 인식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고, 갑질 근절 및 윤리·인권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.

<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원 간담회 실시현황>

- 기간 : '19. 11. 11. ~ 14.
- 횟수 및 인원 : 총 4회, 33명 참석
- 주요내용
 - 인권의식 체감 수준 공유 및 인권경영 발전방안 제시
 - 갑질 피해 사례 공유 및 갑질 근절 개선과제 제안
 - 공익 및 내부 신고자 보호와 신뢰향상 방안 제시
 - 반부패 및 윤리경영 발전과제 도출

- 아울러, 한가원은 가족정책 분야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가족정책 서비스 수행기관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)에도 본 캠페인을 전파하였다.
-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“공공기관의 인권보호와 상호 존중의 실천은 국가 인권 증진을 위한 초석이다”라고 강조하며 “전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행 참여를 독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【붙임】 ‘행복한 한가원 조직문화 만들기’ 캠페인 포스터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행복한 한가원 조직문화 만들기, 가족정책서비스 선도의 첫걸음입니다



소통 활성화

- 정기적인 부서회의를 통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정보를 공유합니다.
- 정시간 회의는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. 타임오프제, 파트별 회의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식을 고민해주세요.
- 회의시간에는 모두가 발언하고 모두가 경청합니다. 건강한 토론문화는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.
- 업무지시는 구체적으로, 명확하게,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해주세요.
- 휴가사용은 직원의 권리입니다.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업무상 조율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소통하세요.



모든 차별 철폐

- 성별, 직급, 출신, 학벌 등 모든 차별적 발언은 부당합니다.
- 성별에 따라 해야하는 일,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해야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편견에 기반한 업무분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모든 직원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. 공정한 기회제공과 직원의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고민해주세요.



부당한 업무지시 근절

- 사적인 업무는 스스로 해결하고, 퇴근 후 업무관련 연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주세요.
- 갑작스럽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바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- 바쁘다는 핑계로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. 협력이 필요할 땐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여 추진합니다.
- 보직자는 부서의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. 신중한 검토와 결재를 부탁드립니다.



상호 존중과 배려 실천

- 업무공간 내에서 반말, 폭언, 고성음 절대 안됩니다. 무심코 내뱉는 언어습관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.
-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인신공격, 비난이나 비하 발언은 갈등과 불화의 씨앗입니다.
-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대화는 행복한 직장생활의 밑거름입니다.



건강한 신고문화 조성

- 신고자에 대한 추궁과 관심을 자양해주세요. 호기심으로 공유되는 소문은 신고자에게 또다른 상처가 됩니다.
- 가해자의 편에서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신고자에 대한 2차가해 행위입니다. 2차피해 발생 시에는 소문을 공유한 이들도 가해자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중하고 책임있는 신고로 부당행위 및 비위척결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.